



# GKS 소식지

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



2024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

## 2024. 8월 졸업을 축하합니다



2024년 8월 22일 목요일

벌써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, 8월 22일에는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. 외국인학생센터에서는 졸업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마스코트 쿠 인형을 선물했는데요:)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도 학위과정을 위해 수확한 모든 장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건국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행복했길 바라며, 언제든지 환영입니다!

8월 문화교류프로그램

### 한식 체험

2024년 8월 2일 금요일

이번 8월 문화교류프로그램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! 비건 학생들을 위한 '버섯잡채'와 '궁중 떡볶이' 2가지 한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. 이미 한식을 만들어 본 학생들, 한식 만들기는 처음인 학생들 모두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놀라워했습니다. 날이 무척 더웠지만 그래도 모두 즐겁게 한식 쿠킹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. 다음 문화교류 프로그램 때 또 만나요!





# GKS 소식지

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



## 2024. 8월 졸업생 소감

안녕하세요 키르기스스탄에서 건국대 공부하려고 온 에딜이에요. 2년 동안 우리 대학교를 다니면서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. 이것을 쓰면서 제일 먼저 생각에 난 표현은 "감사합니다"이예요. 우리 외국인센터 선생님들, 제 소중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, 우리 GKS 친구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. 다들 화이팅



"저는 지난 2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수행하며 귀중한 학문적 성취와 개인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. 정부초청장학생으로서 한국에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



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저에게 큰 도전이자 보람이었습니다. 특히, 다양한 교수님들과의 소통과 연구는 제 학문적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한, 건국대학교의 풍부한 학술 자원과 지원 체계 덕분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으며,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문화적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.

한국에서의 생활은 학문적인 성취를 넘어, 한국 사회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한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느꼈고, 이는 제가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.

졸업을 앞둔 지금, 저는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. 건국대학교와 GKS 프로그램이 저의 학문적 여정과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.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저의 모국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.

다시 한 번, 저를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건국대학교와 GKS 프로그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" - 쉬홀라 아가야를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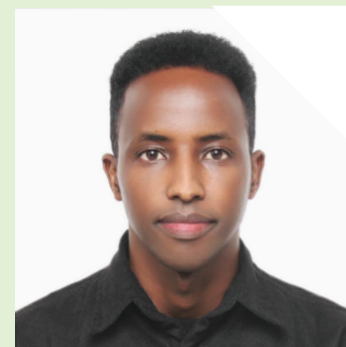
Studing in Konkuk university and working in laboratory helped me a lot in improving skills  
- 산디아



온두라스에서 온 제니퍼입니다. 건국대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. 또한 제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,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.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따뜻한 환영과 지원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경험은 저에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. 앞으로도 건국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나는 건국대학교에 있으면서 역동적인 학문 프로그램과 활기찬 캠퍼스 생활로 유명한 풍요로운 환경을 경험했다. 나는 한국 장학생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. 건국대학교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강한 강조로 나에게 소중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었다.

- 알리



저와 다른 대학교의 정부초청장학생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건국대학교가 우리 정부초청장학생을 잘 지키고 매달 상담과 문화체험들 지속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특히 건국대학교도 서울 중심에 있으며 먹을거리나 쇼핑한 거리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멀리 간 필요 없고 건국대학교 근처에 쇼핑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려는 것은 좋고 만족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저의 후배에게 건국대학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 - 수니다

